

공동체 소식



6월,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본당과 캔사스 전체를 봉헌합시다!!

예비자 인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예수 성심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6월 기도지향

- 김창만(그레고리오), 이대숙(사비나)
김선영(아녜스) 가정
- 김정환(요한), 윤유나(글라라)
김민정, 김성태 가정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국 땅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려니 기대해 보지만 긴장과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북한의 형제들이 굶주림과 온갖 학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과 북은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끝도 없는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도구이기에 군비 증강은 중단해야 하고, 전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 이상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형제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멀리있는 형제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가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와 치유의 밤” 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교육분과 원들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함께 불러요 ♪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9	215	504,501	우리의 소원

주일미사 복사

	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06/24)	정수한(베드로)	이우영(가브리엘)
	정예찬(미카엘)	이원준(요한)
다음주일 (07/01)	고영방(스테파노)	정준구(파비아노)
	고평원(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6/24)	김수연(율리안나)	고영방(스테파노)
	최은미(아녜스)	김명은(안젤라)
다음주일 (07/01)	최은미(아녜스)	안동현(프란치스코)
	박혜정(가타리나)	지은경(리브가)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6/24)	황의정 율리안나 , 최선윤 마리아, 정연숙 막달레나
다음주일(07/01)	김시연 엘리사벳 , 안혜진 임마콜라파, 한정숙 마리아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녜스)	문석찬(요셉)
다음주일	신혜경(마리아)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6월 17일>
- 미사참례 : 87명
- 주일헌금 : \$369
- 교무금 : \$1500



연중 제 12주일 남북통일 기원미사

“민심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천체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6월 24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용서로 미움을 없애고 일치로 분열을 이겨내어 주님의 평화가 한국 땅에 찾아오도록 기도드립니다. 고통 받고 있는 북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명동 성당
서울대학교,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1784년 최초의 명례방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된 명동 성당은 한국교회의 심장이자 서울대학교의 주교좌이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부지를 매입하여 현 성당을 건축하여 1898년 축성식을 갖고 한국교회의 주보인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지하성당 유헤실에는 앵베르, 샤스탕, 모방, 김성우, 최경환 성인을 포함해 9위의 순교자 유헤가 모셔져 있다. 제14대 교구장의 착좌식을 하루 앞두고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한다.

주호식 파드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이사 49,1-6 <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주 님 을 찬 미 하여라 당 신 의 자 비 는 영 원 하 시 다 - -

- 바다에 큰 배를 띄워 큰 물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보았도다.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기적을 보았도다. ◎
- 말씀 한번 하시니 광풍이 일고 높다랗게 치솟는 그 물결은 하늘까지 올랐다가 심연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마음은 아송아송 녹았도다. ◎
-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께서는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사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도다. ◎
- 잔잔해져 줄아라 날뛰는 그들을 희망의 포구로 이끄셨도다. 자비하심을 중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주님께 감사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13,22-26 <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선포하였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아기가,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

복 음 : 루카 1,57-66.80 < 아기 이름은 요한이다. >

말씀의 이삭

“적이 아니라 형제로...”



불쌍한 소녀가 고아원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와의 불화로 스무살 때 그만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부터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 어머니, 특히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성당에도 나갔습니다. 살면서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녀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부터 그녀는 진심으로 어머니들을 용서했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고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상 용서는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된 이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너, 우리 모두 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운 표지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이의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용서는 다른 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녘에 있는 형제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이 아니라 형제로, 없어야 할 원수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Father's Day

사랑하는 정수한 베드로에게!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걸으로는 강하고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당신이지만 내가 느끼는 당신은 참 정도 많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긴 연애기간 동안 당신은 편지봉투에 변호를 적어가며 내게 편지를 해왔고 같이 밥을 먹다가 잠깐 있으라며 나가서 꽃다발을 사서 안겨준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게 싫어서 걸으로 유난히 더 거칠어 보이게 행동을 합니다, 하느님께 둘의 사랑을 맹세하던 날 난 참으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딸 넷 중에서 가장 늦게 그러면서도 가장 멀리 집을 떠나 온 나는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오랜 연애 시절의 지루함 탓인지 기쁘기도 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나를 참으로 난감하게 쳐다보았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2달을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낯설고 힘든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당신의 곁에 있어서 난 하나도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생활이 시작되고 당신은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유학생들을 지내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했겠지만 유학생들의 첫 학기는 그 어느 학기보다 정말 숨가쁘고 힘든 날들입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연구실로 되돌아가서는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급하게 학교로 향하는 당신의 자동차 미등을 보고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그리고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당신 몰래 혼자 아파트에 덩그러니 앉아서, 그리고 아파트 산책길을 혼자 걸으며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주년 되는 날 우리는 낯선 미국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마음 따뜻한 당신이 같이 있어주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당신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야 길에 당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당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워 난 애들 키우며 내 의무를 다 했는데 그동안 뭘 했으면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힘차게 뛰어야 하지 않겠냐고,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을 믿는다는 포장지 안에 난 너무 당신에 대한 실망만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실망의 잔소리에서 침묵으로 침묵이 더 깊은 상처로 깊은 상처가 불신의 벽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나긴 유학생살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당신은 빨리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재촉만 했습니다, 나는 나의 그런 무력함을 아이들이란 방패 뒤에 숨어 항상 정당함만 내세우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이 혼자하기에는 힘겨웠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데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랐는지도, 그리고 그저 믿고 따라오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변듯한 뭔가를 바라는 내가 많이 부담이 되어 혼자 그렇게 힘겨워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가야하는 길에 난 항상 아이들이란 방패 뒤에 숨어서 **“난 아무 책임이 없어, 난 내 할일을 다했잖아”** 라는 명분하에 당신만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서로를 할퀴고 할퀴고, 조금의 상황이 바뀐 지금까지도 난 아직도 당신에게만 많은 책임을 지우고 그 방패 뒤에서 나의 힘듦만 당신에게 토로를 해왔지 당신의 말을 들어보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꿈을 꿀까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꿈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꿈을 꾸려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보고 앞만 보고 걸기보다는 느린 걸음이겠지만, 서로 마주 보며 상대방을 위한 꿈을 위해 위를 보면서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가끔은 눈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해가며, 당신의 얼굴을 보며 옆으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리고 서로 너무도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전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전히 당신은 연애 때처럼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밤새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면서 나를 위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주던 당신이 좋고, 내가 힘들때 웃게 해주려고 추던 당신의 엉성한 춤도 좋고, 같이 영화보기를 좋아하는 당신에게 **‘난 자야한다’** 며 돌아서는 내게 쏟아내는 투정의 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병환에 혼자 빈방 창문에 기대 울던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의한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가끔은 지나친 순수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따뜻한 손을 다시 꼭 잡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하느님께 사랑을 맹세하던 그날의 그 마음으로 당신에게 하느님 앞에서 다시 이야기 해 봅니다, 나의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 당신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같이 꿈꾸렵니다,

“사랑합니다!! 예찬, 예진이의 아빠가 아닌 정수한 베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